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 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종합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비틀비틀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KBS 특선	11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10 월화 드라마 <스파이(월화)>(재)	12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1	30 감성여행 간지역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여성이카데미	30 테마여행 길을 걷다(재)	2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10 콘서트 필 시즌2(재)	00 KBS 뉴스타임 05 엘리먼트 헌터(재) 35 미키미우스 클럽하우스	3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TV <춘천>	00 TV 유치원 30 부부와 숲속 친구들	4	00 안녕 자두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5	00 SBS 뉴스 15 KBC 저녁뉴스 30 씨네포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30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6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7 30 우리집 거꾸기	00 생생정보통	7	10 시사타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포세이돈>(첫회)	9	55 MBC 월화특별기획 <계백>
00 가요무대		10	55 월화 드라마 <무사백동수>
00 KBS 뉴스라인 40 과학카페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1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25 KBS 뉴스 35 비바리극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전통문화의 향기

“노은설은 못보던 생명체... 연기 어려워요”

‘보스를 지켜라’ 최강희, 코미디·멜로·액션 물오른 연기력



“노은설은 지금껏 못보던 생명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이 가고... 차지현과 차무원에 게도, 또 제게도, 시청자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소위 ‘스펙’은 별로지만 ‘밥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뚝뚝 뚫으며, 차분한 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속물근성이 없어 거리낌 것이 없는’ 밝고 건강한 여성 캐릭터가 요즘 안방극장에서 사랑 받고 있다.

흔한 ‘캔디형’과도 다르다. 미래가 불안정한 88만원 세대의 비애를 온몸으로 겪었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는 아니다. ‘강’으로 뚫뚫 뚫 때론

강과 같기도 하고 뱀심이 독특해 재벌 회장과 ‘거대’도 서슴없이 한다.

최강희(34)가 SBS 수목극 ‘보스를 지켜라’의 여주인공 노은설을 통해 코미디와 멜로, 액션 등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물오른 연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최근 인기로 힘입어 2회가 연장됐다. 최근 그를 인터뷰했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연기가 필요해요. 저희 드라마 자체가 ‘복합장르’거든요. 코미디와 멜로, 기업 드라마가 다 들어가 있어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해요. 한가지 장르가 아니다보니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표정하나, 눈빛 하나로 상황이나 표현이 명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

도로 집중해야해요.”

실제로 최강희뿐만 아니라 지성과 박영규도 이 드라마에서 같은 경험을 하면서 섬세한 연기로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복잡한 인물이 있따르기 때문에 장면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이 드라마의 특징이다. 심각한 상황에서 배꼽 빠질 듯 웃기고, 웃기면서도 눈물이 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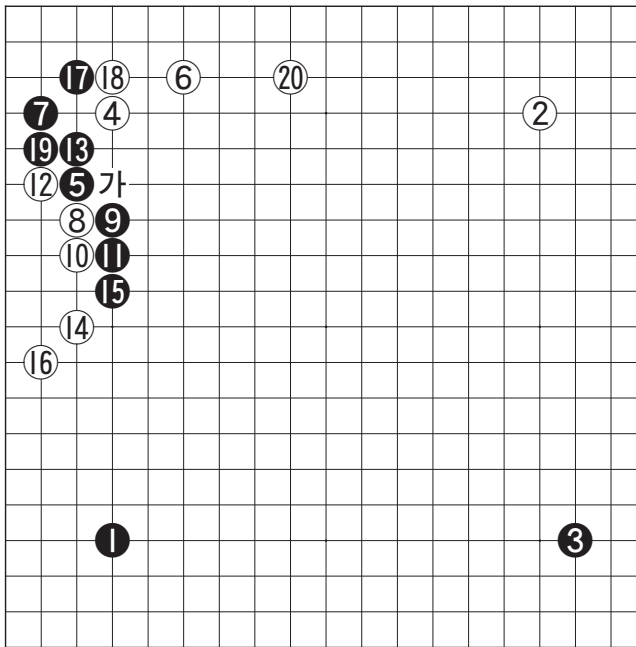
최강희는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 등의 드라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릴까봐 늘 걱정”이라며 “설명이 배제돼 있으니 배우가 순간적으로 추측하고 표현해야하는 게 아주 많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제20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경비축대회

유형형 정석

2회전 2국 1보(1~20)

白 조시균 5단 黑 강상원 5단
(전남교사회) (한국전력)



이 판은 2회전의 또 다른 승자대국으로 부강으로 출전한 한국전력의 강상원 5단과 전남교사회의 조시균 5단의 대결이다. 왕년에는 강팀이었으나 최근에는 성적이 부진했던 한국전력이 이번에는 매우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주장인 기용성 5단을 비롯해 3장인 최종한 5단과 강상원 5단이 모두 1회전을 승리해서 2회전에서 이 같은 호조를 이어간다면 우승 후보로 각광을 받게 된다. 매우 중요한 2회전이다.

출전하면서 이번에도 1회전에서 손쉽게 승리를 따내며 2회전을 맞이하고 있다. 흑 7로 두었을 때 백 8로 옆구리를 치반 아간 수가 최근의 유형형이다. 흑 9로는 아래쪽을 쫓힐 수도 있고 11로도 ‘가’에 있는 변화가 있으나 백 20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두어지던 기본형이다. 다음 한 수가 이 판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포석의 분기점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음 8월 22일 丁丑)

子	36년생 슬픈 광경을 목도할 수 있다. 48년생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지향하라. 60년생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72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능숙하게 되리라. 84년생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64, 07
丑	37년생 나무가 고목 되면 연초 새도 아니 온다. 49년생 은혜를 제대로 갚을 기회가 왔다. 61년생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이 절실할 때다. 73년생 앞에서 흥이 나니 가정도 생각이 도는구나. 85년생 다 가져 온 지방을 못 넘어갈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51, 47
寅	38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 기쁘게 그치지 마라. 50년생 낙락장승도 근면은 슬씨임을 알라. 62년생 식상함에 서 벗어나 파격적으로 행하라. 74년생 일을 감정대로 처리하면 실패하기 쉬우니라. 행운의 숫자 : 21, 02
卯	39년생 반가운 이가 찾아온다. 51년생 상대방에게 허점이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일정이 될 수 있다. 63년생 배우자의 고마움에 애뜻하기만 하다. 75년생 버그고 있던 일을 해쳐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행운의 숫자 : 41, 72
辰	40년생 천 냥 빛도 말 한마디로 갚느니라. 52년생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것을 치며 날아올라야 하리라. 64년생 팔이 들어 굶지 내급지는 않는다. 76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8, 40
巳	41년생 처음 생각을 변경할 수도 있느니라. 53년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계획이라면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65년생 이 간질하는 이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라. 77년생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4, 18
午	42년생 감 건너 범이니 안심해도 된다. 54년생 뒤돌아 보면 허술함이 보일 터이니 보완하라. 66년생 도망치는 노루 보다가 잡았던 토끼 놓칠 수 있느니라. 78년생 간접적인 인연이 의외의 활로가 되어 준다. 행운의 숫자 : 57, 58
未	43년생 한 톨 아가다가 백 냥 잃지 않도록 하라. 55년생 건강 관리에 다각도로 진행하도록 하자. 67년생 고생이 절정에 일박했으니 내리막길에 도래하리라. 79년생 큰 일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97, 08
申	44년생 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 56년생 속 속아 풀린 욕을 잘 찾아내야겠다. 68년생 부당한 청탁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80년생 부담스러웠던 이가 협조자로 변한다. 행운의 숫자 : 03, 22
酉	45년생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겁없이 나서면 안 되겠다. 57년생 적극적인 대의 활동에 주력할 때다. 69년생 재산이 확장될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마라. 81년생 좋은 매너로 베풀면서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9, 65
戌	46년생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할 수도 있다. 58년생 터득대감을 견딜 필요는 없느니라. 70년생 재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82년생 인간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의리를 지켜라. 행운의 숫자 : 85, 31
亥	47년생 취객을 노리는 아리랑치기를 주의하라. 59년생 불충분 보다는 논리적 실력이 실용적이다. 71년생 기본 사항을 원칙적으로 점검해 나가면 무난할 것이다. 83년생 어슬픈 별장난은 사치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9, 44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
<p>개비/ 개피</p> <p>할머니가 나한테 장작개비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전깃불이 없을 때는 불을 피우는데 장작개비가 필요했다. 전깃불이 없을 때는 불을 피우는 장작개비가 필요했다. 이형! 답해 한 가지만 주시오. 이번 제사에 향 몇 개피나 필요할까요?</p> <p>표준어는 ‘개비’입니다. ‘개비’는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조각, 쪼갠 나무토막을 세는 단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비는 사투리가 너무 많아 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말 중의 하나입니다. ‘개비’의 사투리는 ‘개피’, ‘가피’, ‘가치’, ‘까치’, ‘까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투리이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표준어는 ‘개비’ 뿐입니다. 따라서 ‘장작개비’, ‘성냥개비’, ‘담배 한 개비’, ‘향 몇 개비’로 표현해야 합니다.</p>	<p>I'd like to do some sightseeing</p> <p>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요</p> <p>A : Excuse me, Nully, I'd like to do some sightseeing this weekend. Can you recommend anywhere? B : Well, have you seen the Art Road? It's very fantastic. A : Sorry, I was thinking of somewhere more outdoors. B : I see. Well, are you interested in mountains? A : Mountains! That's more like it! Anywhere in particular? B : Well, I'd probably suggest you try Mudeung San.</p> <p>A : 여보세요, 널리 씨. 이번 주말에 구경을 하고 싶은데요. 불만한 곳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B : 예술의 거리에 가 보셨습니까? 정말 환상적인데요. A : 죄송합니다. 저는 좀 더 야외로 나가고 싶습니다. B : 그러세요. 음, 산에 관심 있으세요? A : 응산! 그게 훨씬 더 좋겠네요. 특별한 곳이 있습니까? B : 음, 저는 무등산을 추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p> <p>* 예술의 거리에 가 보셨습니까? = Have you ever been to the Art Road? = Have you tried the Art Road?</p>	<p>厚黑學 hòuhēixué</p> <p>두꺼운 얼굴, 검은 마음이 성공의 열쇠</p> <p>두터울 후, 검은 흑. 낮 두껍고 시커면 마음으로 살기를 가르치는 厚黑學이라는 처세술이 있습니다. 1912년李宗吾가 중국 사천의 지역신문에 ‘厚黑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한 것에서 기원하는데 그는 중국역사상 성공한 인물들 예로 들어 성공을 위해서는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씨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厚黑教主라 칭하고, 厚黑國 건설을 기치로 내 걸었습니다.</p> <p>“겉으로는 인의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두꺼운 낮과 시커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들켜지 마라.” 중국이 1900년 초 서구의 패권주의에 휘둘리면서 세계 중심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기에 필요한 정신일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다 보면 증거가 있는 확실한 잘못임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면에서 설명하려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p>	<p>雨が降っています。</p> <p>비가 내리고 있습니다</p> <p>A : あら、雨が降っていますね。 B : 傘を持ってきましたか。 A : いいえ、朝は晴れていました。 B : じゃ、私のを貸して上げます。</p> <p>A : 저런, 비가 내리고 있군요. B :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까? A : 아니요, 아침에는 개어 있었습니까. B : 그럼, 제 것을 빌려 드릴게요.</p> <p>[단어정리]</p> <p>雨が降る 비가 내리다 雨が止む 비가 그치다 傘を差す 우산을 쓰다 晴れる 개다 曇る 흐리다 貸す 빌려주다</p>
<전남언어문화교육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